



1 **백화지주회추진위원회**, 이 곳이 뭐하는 곳이지 혹시 알고 계시죠?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모임일만 많을 뿐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애용합니다.
현재 학자주 건설준비위원회에 있는 우혜나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세간 우리학교에 건설된 교정광장의 수는? 답은 둘에 있습니다.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우리 역사를**
재현한 고대인들을 알고 계시죠?
'연하' 극동지역 독립유적지 조사단이 이를 엮음,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았습니다.



성명왕의 논쟁과 여성의 인권 사이에 선 사후 피험자 논란, 당시의 상황.

3 **세니브로 열아지는**
서울·용인배출터의 건설의 끝.
이제는 무관심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해 대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학생들과 나누어 봅시다.



한국적 표현의 심화와 모체 그 깊이에 맞춘 특별예술제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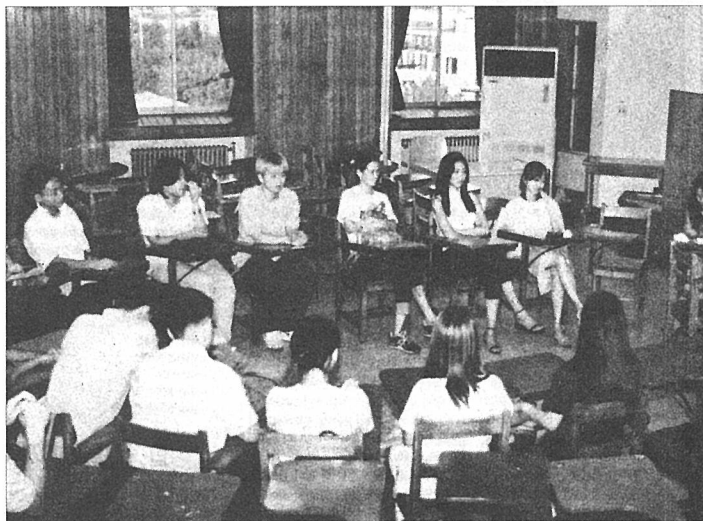
후임 재단이사진 구성 관련 논의 활발

관선이사 올해 말 교체... 구성원간 합의로 재단구성 원칙 세워야

올해 말 관선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진 구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8일 관선이사 파견제 99년 연임 이후 이사진직을 맡고 있는 변형은 관선이사제 제는 99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이 관선이사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올해 말에는 교체가 불가피하다.
조규철 총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일기장엔 정 이사제에 구축을 강력히 시사해 왔으며, 설립자 조 규환배 박사에게 대한 애수 등을 고려해 구 재단 인사 중에서 후임 이사 중 1/3을 선출할 것을 공언해왔다. 이러한 총장의 의견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임 재단과 관련한 논의는 작년 10월 30일 전 재단 이사장 이숙경(84)씨가 재단 운영의 중심으로 '김세 동원문중 종친회'를 언급한 편지를 위해 전 구성원에게 보내면서 급물살을 탔다.(보보 773호 참고) 이씨는 당시 편지를 통해 외대에 민선제에 들어오신다 자신은 다시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김세 동원문중 종친회'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 동원 김 집안에서(설립자)의 유지에 따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민선제에 운영의 상을 제시했다.
이 편지를 통해 민선이사제에 대한 학내 후

보로 부상된 인물은 김세 동원문중 종친회 회장이며, 현 건설본부장인 김중국씨다. 설립자 조 규환배 박사의 조카인 김씨는 외대에서 사 무직으로부터 시작해 총무처장까지 지낸 인물로 학교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중국씨는 본보 773호에서 인터뷰를 통해 "재단 이사진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세간에는 김씨가 이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재 구성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세 동원문중 종친회를 비리재단세력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해 총학생회 선거 당시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비리재단'의 회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용인배출터 총학생회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배출터 총학생회는 지난 6월(목)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1년 특별재정 반대 △민주적인 재단 구성을 2학기 투쟁방향으로 결정했다. 부총학생회장 용환삼(사학·내일언론)은 99년 "누가 재단 이사가 되어야 하는 지는 불합수 없지만, 99년 재단투쟁을 통해 외대는 일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김세 종친회가 재단 이사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선이사 임기 만료일이 다가옴수록 구성원들간의 입장이 더욱 분명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 구성원들이 후임 재단과 관련한 대의와 원칙을 세우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
직업들의 입장은 학생측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외대 지부장 심재영씨는 "재단이 정(민선)이사제대로 가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진의 구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심씨는 "이사진이 누군가 보다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원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으로 의사와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교수들은 내년 상반기 총선총선 후 관선이사제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입장이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는 "교수들이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의는 지난 교협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후임 재단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교수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교협 부회장 김상원(스킨디나비아어)교수는 "어떤 사안이라 의견수렴 방안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이와 개강총회가 지난 7일(금) 서울배출터 대학원에서 진행됐다. 이 날 총회에서는 지난 학기 과 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과제' 페이지 관리와 '재단문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관선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특별 이사진 재구성 회의 할 우리집이 높아지는 시기에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진지한 새 학기를

양 배움터 학운위, 2학기 학자투쟁 논의

▲ 학운위(학자주회추진위원회)의(이하 학자주) 간섭 △8. 10월 사업계획서 토론 △지체 기구 인준 건 등 급박한 안건 통과를 앞두고 열린 양배움터 확대운영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안건통과 대신 보고 결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2학기 학자투쟁계획과 관련, 총학생회는 △합의의사인 이영 △총학생회장위원회의 실질적 △합사구조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 △사립학교법 개정투쟁을 통한 재단문제 해결 등 핵심과제들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학기 학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보완하여 한다고 제기하는 등 학자주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9. 10월 사업계획에서는 크게 학생회 재정비와 통일외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 실천으로 △인문 교양학과 △민족학부인원 확충한 한미학과 정기학생총회 △교직원과 함께 하는 통일위원회 재건 등이 논의되었다.

세민전 지지구 인준건은 연명서를 통해 정기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지난 6월(목) 2학기 첫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가 열렸다. △정확한인 △학원 정세에 대한 발제 △해안기 투쟁의 원칙과 목표 △합의의사 △9월 새 계획안 확인 순으로 진행된 이번 학운위는 총원 55명 중 정족수 이상인 33명이 참여하여 성사됐다. 발제는 99년 재단투쟁 당시 상황과 평가 이후의 외대 교육투쟁·사립학교법건의 문제점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하반기 교육 투쟁의 원칙으로는 △재단 이사진 구성은 전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것, 목표로는 △김세 종친회(김중국)의 재단 이사진 참여 반대 △민주적인 재단 이사진 구성을 들었다. 9월 새 계획은 외대 대학의 원칙을 확인하는 11기와 집중 투쟁 시기인 21기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리뷰 인터뷰 · 용인배출터 한총련 대의원 이따른 연행 관련 총학생회장 양경수(동유럽·폴란드어 99)를 만나

현재까지 3인 연행, 학생들과 함께 해결할 터

한재 용인배출터 대학원 가운데 수사가 진행된 사람은 누구인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된 것은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코도에서부터 가가하던 김희진(21)과 양 99군은 아쉽게도 동아리 연합회에 의해 연행됐다. 수사도중 영장기각으로 풀려났으며, 영장시기가 재기된 상태에다, 동양학대 학생회장 박정호(동양학·아프리카어 99)군은 경찰당국에 이복의 아내를 회유해 잡은 연행됐다. 총학생회장 박기남(사립·독일어 98) 양은 동양학대 학생회장 연행연으로 용인배출터 일꾼으로 용인당시 형의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경찰이 어머니와 동행해 학교에서 경관했다. 현재 동아리연합회장을 제외한 대의원들은 한총련 탈퇴 후 활동 중에 있다.
한재 총대 대의원의 숫자는 총 몇 명인가 본인과 부총학생회장 두 명이다.
경찰당국에 협력을 권고한 방식은 어떠한가?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집을 방문하거나, 부모님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서울배출터와 달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타 대학의 한총련 팀장과 비교해서가 어떠한가?
경인총련 의장이 배출된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인총련에서는 경찰청과 경기인민지역의 타 학교들과 비교하면 수사가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경인지역에서는 경찰청이 교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는 경찰당국이 학교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침투 사범대 경우는 협박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외대학보가 88기 수습기사를 모집합니다

끝이 없는 취재와 기사 작성
보장받을 수 없는 사생활
아이는 밤샘과 회의로 인해 피곤에 젖은 눈
서로에 대한 격려와
완성된 신문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

일시 : 2001년 9월 10일(월)부터 19일(수)까지
평가·면접 시험일 : 9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 양 배움터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문의 : 서울-02)961-4152, 4466
용인-031)330-4112
oedapress@hanmail.net



민족자주연론 외대학보

사건부정

자유를 향한 갈망

▲ 자유... 당신은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한민 자유를 향해 사색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자.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있는 나를 느꼈을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해 갈 것이다. 그럼,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단순히 상상만 하거나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무무 탈, 무엇보다 시작할 것인가? 이쯤에서 익숙한 문구가 생각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자유를 갈망하던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시인의 호흡 속에 역사의 한켠에 묻혀 버릴 수 있던 사건이 현재 의문사진규명위원회의 노력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1997년 9월 15일 추석 저녁 광주시 북구 오아시스 호텔 401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투쟁명목으로 수배 중이던 김준배(광주출생·당시 27살)가 경찰에 쫓겨나 추락하여 사망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부검장에서는 이바트 13층에서 케이블산을 타고 도망가다 중상을 입고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틀만에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4년이 흐른 후, 지난 9월 30일 의문사진규명위원회(위원장 양경수)는 김준배군의 숨겨진 죽음의 발자취와 함께 남은 상처, 이바트 벽면에 남은 김군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 회사직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케이블산에 남아있던 흔적을 증거로 제시하며 추락 직후 김준배군이 경찰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최초로 정보를 입수한 형사 1개급 특진이 걸린 김준배군을 붙잡기 위해 프락치 공작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진리는 연행과 밝혀진다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 그들 죽음으로써가 물려준 유산은 무엇인가? 자신의 승진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던 한 경찰의 욕심, 아내의 딸 한민이던 아내에게 지내온 산해를 고백한 후배 때부터인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나? 그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구속되었던 것은 '한민이 이적구'이란 줄기까가 아니라,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된 용인배출터 양 단과대 학생들에게 위헌적 줄기까가 역시 한지 진행했다. 96년 경찰심사 경관이 딸기 대신 비자금 비리를 막기 위한 '한민이 이적구'를, 이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갈길 바라는 전국의 수배자 대학생들에게 자유를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잊지 말아야 함을 담담하게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칠까 한다. "당신은 혹시 한민에 대한 편견에 얽매어 있지 않은가"

“잊혀진 고려인 역사 복원할 터”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간 '러시아 공동지역 독립운동사적조사팀'(단장 반병을 교수)은 연해주, 아무르주 자바이칼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을 탐사.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하'를 발견하는 등 러시아 한인사회 연구사에 큰 획을 긋는 연구성과를 얻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반병을 교수를 만나 답사의 성과와 뒷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들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온 반병렬(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교수의 심정이 마치 길재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폐허로 변한 집터 사이에서 깨어진 그릇, 연지방아, 땃돌 등 이국 민라에서 우리 식의 삶을 개척했던 러시아 한인(고려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때면 말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고

의 역사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일제의 괴압박을 피해 러시아로 건너온 독립운동가들은 이 지역에 학교, 교회, 신문사 등을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벌였다 실제로 스탈린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때 이 지역을 통해 국교 정상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1937년 전까지 만주와 몽골,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는 20여만명의 한인들이 정착했다"

상'에 포함시킨 국제언론인협회(IFJ)가 이들 유신시절 한국의 언론상황을 왜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급조치 9호 등 언론탄압을 위한 조치의 발표 중이던 1978년도에 "한국의 언론환경은 미국이나 스위스 등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한국의 언론 환경"이



第 2 頁

'오백년 도읍지를 팔마로 돌아 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다...' 멸망한 고려의
옛 수도를 돌며 느낀 회한을 표현한 길재의 시
다.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한인

흔치는 반 교외에 불과했지만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를 비롯해 제2연고지 그들 추후로 교외, 시가지, 촌락 등지로 퍼져나간 조지민들은 독립운동의 큰 강이었던 러시아를 넘어간 마을 11곳을 발견해 최초로 러시아 지역 한인들의 역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이번 유적지, 홍보도 장군이 할일임은 새 힘을 결심시켰던 18도 연고지 현장조사도 비록 답사지역이 지나쳐 버렸지만

“구로다 만호를 왕이라 자유로웠지만 러시아 지역 교외인들의 역사도 대대적인 연구가 절실히 수준이다. 한미비교 한국 근, 현대사 사를 ‘잊혀진 역사’인 것이다 실제로 마을 2개는 대부리의 신장리라고 되지만 또 다른 마을 2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반교소는 ‘참지만’이라 교외인들의 역사는 1963년 조선일보 ‘한민’ 잡지 아래다. 1986년, 1989년, 1990년 비록 1차 합동도 사립에도 대한 차이를 피해 13도의 구가구 부속을 결코 두만강을 건너 불러다 보스루 교외에 정착한이 신지적인 러시아는

만 점으로 표시된 한민마을이 수십개에 이
었다. 이 때 목격자들은 이물질였던 수습물들을
후일 사화주의자들에 보냈다고 한다. 만 교수는
이 시점에서, 감시당하고 함께 한
선배들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박
순의 사위인 김현석 등을 만
났다고 당시의 전 설과 다르다.
당시에서 그 근거를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
년, 일본의 침략자들에 의한 만점 장
의 소수만큼 아주 정략에 의해 고려인들은
연간이나 지역으로 이주시켜 주고 그 한이
아닌지 당시의 기록에 한민교수는 단정하고 만
"이후 만민교수는 만 한민 교수의 수에서
떨어 내린 것은 상당히 적을 줄이겨 지려
다. 그러하기에 이번 답사에 대한 관심들이
줄면 될 것"과 "전하는 만민교수의 말처럼 조
민은 실감은 하체에도 큰 관심을 보일 수
고 있다. 이에 만 교수는 "북한의 편입이 다
다 자국에서 만 교수의 '북한'의 편입을 통
후대에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를 바란다"고 전한다.

장사를 기

러시아어의 독립운동사적지
유적지와 독립운동 근거지

(1) 지신현
본조리산에는 집터 3개, 연자방아의 딸뿔
모양이라 하여 등을 확인하였고, 이외에 현지인
증에 따르면 2-3개의 집터와 장기가 다 있
고 한다.

(2) 카자케비예(리보)
완전한 형의 무덤터, 눈에 물을 댔던
(와)의 수로(水路), 딸뿔.

(3) 블리디보소크
조(조산)사범학교, 일본영사관, 신한촌
여러 (독립운동유적지(31독립촌, 한인회
관)등회사, 관인문서, 스탈린구락부 등
유적지를 확인하였다. 일본영사관의 현주소
아드미탈라 근처 2번지터로 추정되어 한
일통화가 개척한 시점인 1919년 상해에서 자
국무솔의 취지로 삼촌 김 갈 거주했던 지

날조사단이 발견한

은 러시아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데라는
인들의 종간, 같은 페르시아 레즈카 지역인
동쪽의 레즈카의 공방에 한인묘지가 있었
중국 등을 참조하여 새롭게 검토할 필요
다.

(4) 화리보르스크
초기 한인문화비키자 한인사회단 창당
인 김광현씨가 활약하던 건물(그의)의
가 있던 건물과) 회사(유나이티드)에
조스(Uryu)인대, 작가 조병희의 생
1929년 중소무역총회시 공을 세운 한인 김
의 이름을 딴 김유전 거리, 백두외의 고종
스탈린장면 때 처형된 사람들을 위한 분향
위대한 중앙공동묘지 등 이미 알려진 유적
답사하였다.

(5) 블라고비시렌스크

보다 인문환경을 위해서 더 졸다는 말에... 그러다보면 우리는 이제 정부에 대한 역할과 책임적인 인문정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해야한다. 그러면 내가 한국인문자유기 실현된 나라로 판단할지 모르니까,

〈한글〉

0... 클레라는 위생수준과 밀접한
계가 있는 후진국형 질병이다. 그런데
리 나라에서 발생 단 8일 만에 환자수
100%에 육박할 정도로 그 확산 속도
빠르다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크게
달한 적조가 이번 클레라의 확산과 관

보도-다함께 주최 '신상공개가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없앨 수 있는가?' 토론회

신상공개, 성범죄 원인 도외시한 마녀사냥

지난 주 인터넷 사이트 인기검색순위 1위는 다름 아닌 '청소년보호위원회'였다. 한때는 접수불능이 되다시피한 이 사이트에 대한 관심은 물론 대다수 네티즌들이 청소년 문제에 갑작스럽게 큰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지난달 30일 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공개 명단을 찾아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정당화하는 것은 억압적 체제를
중시하는 지배자들의 논리가 관
철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는 사회적으로 공포분위
가를 몰고 올 뿐 아니라 성병
죄의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강
조했다. 이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성매매와 성폭력의 차이" '신상'

The screenshot shows the Samsung Electronics Korea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icons for Home, About Us, Products, and News.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links to Apple Computer, Apple Support, Apple Market, and Microsoft Window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amsung smartphone and a section titled '삼성생태계' (Samsung Eco System). This section includes a list of products: Samsung Galaxy, Samsung Smart TV, Samsung Smart Home, Samsung Smart Car, Samsung Smart Office, Samsung Smart Education, Samsung Smart Health, and Samsung Smart Life. The page is in Korean.

**식, 그 재생산의 구조와 균열 심
지엽 열어**

역사문제연구소의 2001 심포지엄 '분단의
그 재생산의 구조와 균열'이 오는 15일(토)
은 1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서 열린다.

분단 반세기 역사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모의유엔 총회 열어

스물 다섯 번째 모의유엔총회가 '새로운 보질서 확립을 위한 문명간의 대화'란 주제로 오는 14일(금) 서울배움터 국제관 예경홀 열린다.

모의국제연합은 유엔이 정한 '문명간 대화'에 착안, 세계화 시대에 각 문명간의

이를 지난 달 평양공동선언서 관련 기
로 바뀌면 어떻까. 색깔론은 언론의
준과 관계가 있는 후진국형 질병이다.
런데 우리 나라에서 지난 달 16일 첫
같은 환자가 발생했고 빠르게 확산됐
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남쪽에서 크
발달한 언론의 '정부 대북정책 판지
기'가 이번 색깔론의 확산과 관계가

청소년 보호위원회측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각계의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지난 6일(목)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다함께 모임'에서도 '신상공개가 청소년 신상에 성범죄를 없앨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개 기준 강화' '사회의 전반적인 성 억압적 분위기' 등의 주제를 놓고 한 시간에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중, 신상공개 반대 의견을 밝힌 조은정(사회·신분방송 92)은, "통제사수 수치를 따져보면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제대로

▲ 성범죄자 169인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청소년위
사이트는 한때 접속불능이 될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

재되어 있는 '본단의식'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이 통일부 장관 해임 등 예측불허로 치닫고 있는 현 통일장세 속에서의 학문적 역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병문(국사편찬위원회)씨의 사회로 강연(서울대), 임대석(역사비평 주간) 조희문(연대)씨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12부

를 통한 갈등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매스미디어 △신문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미국의 MD국주, 지적재산권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매 해 10여개국 대표위원들을 선발해 유엔 총회처럼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 학교를 비롯, 고려대·숙명여대·

따라서 '대북정책 판지갈기'가 발달 조건, 즉 적당한 세무조사와 인문감시 부재 등이 '색깔론을 활성화시킨 것'이라는 말이다. 통일운동 관계자는 "우리 회에 색깔론 굳이 심종하며, 적당한 조 계를 만나면 집단 발작을 일으킨다"고 했다.

발매자 정진희(한양대 여성대학원, 원간)는 "다 함께" 편집위원회는 "청소녀 성범죄의 원인은 패색적인 성교육, 가난, 성적 소외(남녀 성차별, 동성애 불인정 등)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이런 요인들을 도의시키고 신상공개 등을 통해 개인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국가의 개인을

된 성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밀려드는 대중매체의 성상징화를 접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이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 미국의 예를 들며 가해자들이 집단 린치를 당하는 등 보복 사례가 난무했다"며 가해자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신상공개 문제로 시작한 토론회에서는 점차 범위를 넓혀 성적 보수주의, 소년 성문제 등도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대로 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부터 작업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발제자의 정발언과 함께 토론을 마쳤다. 학술

제발표, 3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분단외식의 대중적 재생산 기반이 형성된 계기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지식인 사회를 해서 살펴보고 2부에서는 문화와 영화를 중심으로 여전히 지속되는 분단체제의 변화상 문제점을 짚어본다.

대 등의 학생들이 각 나라 대표위원으로
왔다. 각 나라 말로 발표되는 이들 대표
들의 발표물은 유엔공식언어(영어, 불어,
인어, 아랍어, 중국어)와 한국어로 통역되
달린다.

색깔론의 번식이유

비둘기철판

망 산 골

◀ 알립니다

· 카콜하실분
 한남주 은평아파트에서 매일아침 8시 20분에 출발해요.
 소요시간은 대략 30~35분 정도예요. 같이 가고 싶은 분
 있죠?? 그럼 이리로 연락하시어요 011-9037-7741
(김용원)

· 민족무예 태권이 신입원을 모집합니다.
 출사위 같은 부드러운 몸짓 속에 빠르고 강함이 공존하는
 무예! 민족무예 태권의 맛을 함께 할 학생인은 어서 찾아
 오세요. 학생회관 3층 민족무예태권(016-373-4696, 016-
 330-6919) 전화가 아니면 인터넷도 있어요.
 카페: 커반한(caf.daum.net/kebanhan)
 홈페이지: <http://taekkyoung.kahon.org>
(민족무예 태권)

이 문 벌

◀ 알립니다

· 순말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수화교실 기초반'이 17일(월)
 날 개강해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공대 209호에서 수
 화를 해요. 수화로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은 이날 꼭 오
 셔야 해요. 문이의 손אל로 하세요.
(순말사랑화)

·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주 설문조사(교통편)를 실시합니다. 오는 수, 목요일 양일
 간 스쿨버스 10대와 노선버스 5대에서 각각 학우들을 만나
 볼테니까요. 이른 아침 버스 안에서 플리시더리도 설문조
 사에 꼭 참여해주세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 합칩니다

· 오늘아침 9시 25분에 도착한 1500-2번 버스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거 같아서요 주머니에서 빠진거 같습니다. 혹시
 라도 주으실분 있으시면 아래 메일주소로 메일좀 보내주
 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mail: p-jeong-hwa@hanmail.net
(박정희)

· 외대 연극회에서는 오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7회
 정기 워크 연인 토~해피엔딩'을 대강당 무대에 올립니
 다. 저희가 한 여름 폭 줄리며 준비한 만큼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꼭 보러세요!
(외대 연극회)

◀ 합칩니다

· 외대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세계민속축전'의 기획
 단을 지금 급하게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축제를 준비하시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
 으세요??
 그럼 빨리 여기로 연락하시어요.
 011-9036-9807(동양대대학 학생회장 번호이구요)
 016-293-9367(이 번호는 세민전 기화전장 번호예요)
(세민전 기화전)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황선 기자실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글코드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666 팩스 : 961-4183
 황선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60

르반·대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

본사·사후피임약이란 무엇인가

“이것 받고 어떻게 살라고...”

비(非)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직업이란 뜻이다.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협진 '월경'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의 조건에서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벗어나는 고용관계를 총칭하는 것", "월경에 있던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서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자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IMF와 함께 다치온 구조조정 이후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비정규직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는 심각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자기와는 상관없는 먼 곳의 일 일뿐일까? 이번 호에서는 우리 대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학내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권진자



“사실상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어. 곤란해...”

우리학교에 음악을 제공하는 동원인전시스템에 소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는 생계유지가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며 답을 흐린다. 그의 대답에 따르면 주 5일(경비직인 경우 격주로 주6일) 하루 8시간 한달 동안 일하고 받는 대가는 고작 60만 원으로 최소 1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보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6년 전부터 용인배출터 경비를 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그 일급에서 세금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빼면 남는게 거의 없어. 거기다가 1년계약이라 언제 일지리를 잃게 될지 모르니 항상 불안하죠”라며 한숨을 내쉰다.

동원인전시스템은 우리학교에 음악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용인배출터는 현재 언론과 본관을 빼고 기숙사, 자판대, 인문·경상대 등 모든 건물에 사실상 용역자의 관할아래에 있다. 대부분 1년 계약이며, 여자는 미화실을 맡고 있지만 요식은 일손부족으로 인해 남자가 경비와 미화일을 병행하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용역직이 관할하는 한 건물의 안내실을 가보았다. 아무에나 세 매이 잠시 앉을을 멈추고 귀고 있다. 수시로 올라가 강의실과 화장실 청소를 하는 아무에나들은 건물 주위의 정원이 하나둘씩 관리하는 상태라서 일이 무척 힘

들다고 한다.

남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만 원정도 받는 것에 비해 여자들이 받는 금액은 15만 원이 더 적은 45만 원이다. 거기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나면 42만 원으로 지난 7월 중 세로 재정된 최저임금인 월 47,600원에도 못 미친다.

“생계유지가 힘들지. 많은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어. IMF 타지고 나서 임금도 점점 줄어 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말야!”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다.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다. 집안의 고충을 헤아리는 이들은 1학년인 맏고과 군대에 갈 계획이라고. “힘들어 정말... 가난이 고통이야”라고 비가리며 그녀는 대를 짊어지고 화살로 향한다.

박씨의 함께 청소할 준비를 하는 이씨 아주머니를 따라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묻자 그녀는 먼저 “이런 방학때만 해도 정규직 직원들은 2주동안의 휴가를 받았는데 우리 겨우 2박 3일뿐이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질적인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차이가 극심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문직·사무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80~100%정도 정도 덜 받는다고 하였다. 많 아봉자 정규직 보수의 33%이고 심할 경우 28%밖에 못 받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계약직이나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는 당장 해고하려고 하지. 다들 나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노조를) 만들라고 하겠어?”라며 노조를 만들 엄두도 못 낼 상황이라고 한다.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며 앞으로의 생활이 나아지거나 기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지만 오히려 우리 학교는 효율적인 대학경영을 위해 사라져 모든 단속 노동자를 용역회사에 맡기려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1200만 노동자 중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용역·임시·일용직을 고려하면 실제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1.1%에 그치는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목소리노동의 설립을 유예한 노동법 개악... 이런 사회의 부조리속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양창호 기자 hufshan@hanmail.net

비아그라 능가하는 노래보 논란, 핵심은?

사후피임약이란 무엇인가

성 관계 후 복용하여 수정란의 이동과 착상을 방해해 임신을 막는 약이다. 현대약품이 프랑스 1BS사로부터 사후피임약 '노레보' 정에 대한 국내 수입판매허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레보정은 프로게스테론의 일종인 레보노르게스테렐을 1정에 0.75mg의 함유하고 있다. 이를 대량 공급하면 임신을 방해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즉 높은 용량의 레보노르게스테렐을 투입하면 삼배란 전에는 배란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며 삼배란 내에서의 정자의 난자의 이동을 저해,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삼배란 내벽 및 경부(임부의 자궁경)를 변화시켜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정된 후배란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저지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험 결과 72시간 내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 피임에 성공할 확률은 70%에 달한다. FDA는 이 피임약을 사용하면 1년에 2백30만 건의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따라서 80만 건의 낙태시술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한다.

안정성은 검증됐는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피임약에도 성숙을 늦추는 에스트로겐과 임신을 촉진하는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돼 있으며 이러한 일반 피임약을 사후 피임을 위해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일반 피임약을 과량 복용하면 메스꺼움, 두통, 구토, 어지럼증, 유방통증, 복통, 두통, 피로감과 불규칙한 출혈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노레보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30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시판중이며 프랑스에서는 비(非)처방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피임약인가 낙태약인가

의학계에서는 임신이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되면서부터라고 본다. 그리고 착상이 되는 시기는 난자의 정자가 수정된 뒤 5~7일 이후이다. 그러므로 노레보 수위에 반대하며 수정 자체를 생명을 보아 이를 임신으로 간주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수정을 임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착상을 방해하는 행위를 낙태로 보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수정단계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종교계의 주장은 과학적 논거의 측면에서 미약하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가족연맹 등에서도 이 약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WHO는 이 약이 낙태약이 아님을 밝혔다.

흔히 ‘72시간’ (성분명 미페프로스톤)을 사후 피임약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사후피임약의 구분되는 낙태약이다. 이 약은 8시간(프로게스테론 제제로 수정란의 태반 착상과 태아 성장을 돕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이미 자라고 있는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지게 나게 한다. 낙태성공률이 90~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신한 뒤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후피임약을 바라보는 현 법체계

수정 후 착상 이전까지 약 13일 동안에 이뤄지는 착상 방해행위도 초기 낙태로 간주되지만 합법적 의미의 낙태는 아니다. 합법은 착상 이후부터 진행까지 작전까지를 낙태죄로, 진행 개시 이후부터는 살인죄 범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후피임약의 복용은 초기 배아를 제거해도 합법상의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또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생명유지 예외규정을 통해서 이미 시판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전망

일각에서는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하기 위해 선진국과는 달리 ‘노레보’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사후 피임약 시판 허가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0월 사후 피임약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후피임약 도입 논란과 관련,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문조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남상철도 과감히 관심을 가지자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기고글·사후피임약 찬성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

사후피임약 수위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견은 주로 종교단체(낙태반대운동)와 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기된다.

이들의 주장은 첫째, 이 약의 복용이 ‘낙태’이자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난자의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수정란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 언제부터가 인간이라는 논란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후피임약이 시판이 낙태 수순 전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하는 여성은 매년 대략 150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기혼자가 70%이다. 실제 기혼 여성 가운데 낙태 경험자는 다섯 명에 두명(40%)이나 된다. 낙태 여성의 20%는 직장생활 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무려가 낙태로 20만 명의 여성들이 죽어간다.

수정을 생명이거나 사후피임약 복용을 살인행위라고 속삭여주는 사람들은 매년 불법 낙태 수술로 인해 숨져가거나 건강을 망치는 수많은

여성들의 생명에 대해서 왜 무관심한 것인가. 왜 여성들이 낙태를 하겠는가? 여성들이 낙태를 결심할 때는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현실 때문이다(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것이다). 만약 출산 및 육아가 사회적 책임으로 되어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사회적 부담이라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사라지고 낙태를 선택할 여성의 수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둘째, ‘낙태’를 합법화하고 사후피임약을 시판하면 ‘성문란’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 여성의 압도적인 다수가 기혼 여성이라는 점은 ‘성문란’이 낙태의 주된 요인이 라는 주장을 반박해 준다. 한편, ‘성문란’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매하다. 또 ‘성문란’이 성폭력을 부추킨다는 어떤 유효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진정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결론은 명확하지 않을

것.

조은정

(사회·신문방송 92)

그·림·타·레 <20>

정현호 기자



제7회 Culturette 선봔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주제: 여성의 사회적 성공

당당한 여성의 생각, 들려주세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치세요.
태평양은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낼 때, 더욱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에 대한 당신의 생각, 지금 들려주세요.

1.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생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공모기간 : 2001년 9월 1일~10월 31일
3. 공모주제 : 여성의 사회적 성공
가. 여성의 사회적 성공 전략
나. 또 다른 의미의 여성의 성공
다. 성공한 국내외 여성들의 사례연구
라. 역사와 전통속의 성공여성 발굴 등
마.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기타 주제 가능

4. 응모방법 : 가. 분량 : A4 용지 20매 이내의 분량 (단, 표지와이름 제외)
나. 제출서류 : 원본 1부 및 사본 2부
다. 제출처 : 태평양 (2001년 9월 11일) 제7회 Culturette 선봔
제7회 Culturette 선봔 (1부 사본은 9월 11일)
다.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
라. 공통 연락처 기재할 것
5. 시 상 : 가. 최우수상 1명 ... 상금 및 상품 300만원
나. 우수상 3명 ... 상금 및 상품 200만원
다. 장려상 10명 ... 상금 및 상품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 2001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7.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인구
한강로 27가 175-2 성원빌딩 2층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번호는 여학생 20만명까지 무료)

8. 기타사항 : 가. 응모지 전달 기한을 중점
나. 수상자는 당사 입사 시 유예
다. 수상자 원문과 제7회 Culturette 선봔 제2주권 장학
라. 제출한 논문은 다른 경쟁대회 논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마. 응모한 논문은 일제 반납하지 않음
바. 문의처 :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사무국
(02-749-2388/02-709-5831)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주제부합성, 형식
검정(Culturette)이란?
여성문화활동을 뜻하는 말로,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대학보 301

한민대

분석 · 서울 · 용인배움터 거리좁히기

서울 · 용인, 하나되는 모수풀이는?



"점교 기회 없어져 잘 모르겠다"
"이름만 같을 뿐 서로 잘 모르는 것 같다"
"다른 학교 같다"
"용인은 건물들이 좋아서 부럽다"
"계절학기 들어오지 않 거 부러움 없다"
이 대답은 '서울 또는 용인배움터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들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다. 이 대답에서는 '좋다, 싫다'의 입장을 표현하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시나브로 넓어진 용인 · 서울배움터 학생들의 마음의 거리가 이제에는 아예 무관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또한, 오랜 전 터 모 과에서 양 배움터 공동으로 준비했던 C 술체가 개시판의 한 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여과없이 드러낸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사는 교수나 직원 사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같은 이름의 '외대'라는 한울타리 안에 학생들이 서로간의 마음의 벽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가 만나 본 양 배움터 학생들은 "양 배움터간의 마음의 거리와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대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 "학교측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체육대회나 세로배움터와 같은 행사의 교



류가 필요하다" "세민전과 세민제는 공동점이 많으니 교류가 필요하다" 등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공동된 방안은 '교류를 많이 하자'로 모아진다. '산악부'의 예를 들면, 원래 서울배움터에 있었던 산악부는 용인배움터에 개교를 계기로 용인배움터에 가서 산악부원을 모집하였다. 산악부회장 신동삼(사상 · 서반 아이어 00)군은 "지금도 격주로 등산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단합이 잘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 배움터 마인어과는 매년 10월이 되면 '버트데까'독립이라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동문 체육대회를 연다. 이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에

대해 서울배움터 학생회장인 차신우(99)군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같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마인어과의 교류는 여러 가지로 시시하는 바가 크다. '체육대회'란 일반적인 행사가 상호이해의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인위적 교류를 만든다면 더 어색할 뿐이다"라는 이유(상정재 01)의 말처럼 교류를 하겠다고 편한 행사를 만들기도 하는 것은 행사가 신장을 쓰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이렇게 같이 만드는 작은 행사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정우 기자 tingun@hanmail.net

민나보기 · 서우희 회장 이상경(경보산업공 · 산업정보공 00)

서역로 엮어가는 사교의 장



서울과 용인 각기 다른 배움터에서 같은 이름의 동아리가 활동하는 데에 있어 해를 떠 배경은 무엇인가?

원래 서우희는 서울배움터 동아리였다. 그 뒤 용인에서 학교가 생기면서 서우희 선배들이 같은 동아리를 용인배움터에 세웠다. 그러나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뿌리가 같은 동아리나 만큼 교류도 많을 것 같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봄에 열리는 인사전과 가을에 작품전 그리고

홍 커피데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다. 방중에 같이 교육받은 프로그램도 있다.

학교간 거리도 있고 회지도 서로 다른데 행사를 같이 하는데 힘든 점은 없는가
술체가 서로 자주 만나서 행사를 준비하고는 의지하는 듯하다. 정기적인 행사라는 말이 있는 상황에서는 진행되다 보니 준비는 잘된다. 하지만 둘 사이에 의견 조율이 나름대로 힘든 듯하다.

그럼 서로 교류를 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동아리 활동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을 사귀는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 용인 같이 행사를 하러 보니 자연히 많은 친구를 사귀고 또한 많은 선배들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류를 하려는 다른 동아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두 학교가 서로 교류하는 술체가 한한다. 우리가 태생부터 같이 하게 된 경우지만 그래도 더 많은 점이 많다. 하지만 서로 같은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일이나 단점 보단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민나보기 · 마인어 과회장 차신우(동양 · 마인어 99)

'머트데까'로 뭉치는 마인어과



마인어과가 서울과 용인 사이에 서로 교류하는 것이 있다면

1년 1번 씩 10월, 중간고사 끝난 후 '머트데까' '독립'이란 뜻'이라는 이름으로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체육대회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후에 서로 2달 동안 머트데까 준비를 한다. 그리고 중간에 필요 할 때마다 과회장이 만난다.

둘 사이에 이질감이나 교류에 어려운 점은 없는가
다른 나라에 가면 어문언어는 주로 '과'이므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두루기 마인어과는 우리 나라에서 드문 과라 서울 · 용인이 마인어과처럼 잘 묶인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머트데까'이며 약 30-40명 가량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체육대회 외에 다른 교류는 없는가
매년 봄 교수님들이 발간하는 '발레아시아 사회'라는 잡지를 통해 졸업생, 재학생 졸업논문 교류를 한다. 올 봄에는 인도네시아 사인을 초빙하여 세미나에 서울 · 용인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다.

김종현 기자 bpress@hanmail.net

8면 문제면에서는 학생들의 글을 받습니다.
E-mail: oedapress@hanmail.net
전화: 02-961-4152 031-330-4112

문화부

반

갈람하다(21)

갈람한(기름칠) 얼굴에 알뜰하게 도독한 고, 골게 생긴 귀, 속 배진 목, 모진 기안도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더는 거리우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좀 가늘고 긴 듯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고 '얼굴이 갈람하다'고 말한다.

남한사건에는 이 단어가 등재돼 있지 않으며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기름칠하고 호리호리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갈람하다'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매 등의 생김새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갈람한 얼굴'을 남한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고치면 '기름칠 얼굴'로 바뀌어 볼 수 있다.

문화역사

세계



에릭 솔로서
/에코라브르/16,500원

패스트푸드의 제국

햄버거는 현재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먹거리이며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음식이다. 이 햄버거의 주된 재료는 고기다. 하지만 그 고기는 수백 마리의 다른 소의 고기 조각이 모여 하나의 햄버거 고기가 된 것이다. 이런 가공 방식은 세상에 노출될 확률이 크며 지난 8년간 이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람이 수백명에 달한다는 통계 조사를 이 책은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윤 추구의 극대화로 나타나는 인권 침해, 경제 침략 등의 다른 다양한 사해도 담고 있다. 기차 출산인 저자 에릭 솔로서는 이 책에서 우리가 생각없이 먹는 음식 속에 감춰진 진실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공인



데즈먼드 모리스
/영인문화사/8,500원

털없는 원숭이

"아무리 진화했 비단옷을 걸치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남아있는 법이다. 제이머리 우주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원숭이" 1967년경 100만년 가까이 존재하는 진화론을 세운 바 있는 이 책의 저자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사람도 동물인데 왜 사람을 동물학적으로 볼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원숭이' '기르기' '사육' '먹기'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로 해석된 인간의 모습은 나약하고 괴상한 존재다. 이 책을 읽으며 단 순히 지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생물학적 종으로서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화



헝기증

자신 때문에 동료관객이 사망한 과거의 사건 때문에 고소공포증에 걸린 전직 형사의 자기치료 과정과,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살인사건의 발단을 밟아 가는 과정의 전황적 이종종종 작품.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벗이 살아서 돌아다니며 남자를 혼란시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허치콕의 독특한 연출 솜씨가 돋보인다. 허치콕 특유의 '흔레보기'는 '헝기증'에 이르러 관음주의자의 행적을 벗어나 참의 도구 역할을 한다. 허치콕의 관음주의와 환상주의가 만들어낸 반 케미스트릭 시각의 자극과 남성의 시각의 작용이다. 프란스 누베르와 영화감독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허치콕의 영화들은 문헌적 오락적이면서 영화적이라는 대한 인식과 형이상학적 불만에 대해 통하고 있다.

인터넷



문화개혁시민연대 <http://www.cncr.or.kr>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시민들이 주안인 세기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 공원을 관람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개혁시민연대는 이런 환경을 목표로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접근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그 현상에 대한 다양한 원도 올려놓고 있다. 또한 각종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운영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